

가을 산사에서 法香에 취해보자

통도사

개산 1358주년을 맞아 10월 3일~4일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3일 설법전에서 열리게 되는 입재식과 법요식의외에 부처님 가사와 자장율사 가사 진경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돼 있다. 또 도량 곳곳에서 도예 전시, 서예 전시, 꽃꽂이, 사진전 등의 전시회와 영축사상대회가 열려 중·고등학생들에게 개산의 의미를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4일에는 통도사유치원 원아들의 재롱잔치와 개산대제 기념 합창제, 개산대제 기념 제10회 쾌활탕 특별전, 지역노인 경로당 위문 공연 등 문화, 복지 등이 고루 어우러진 행사가 치러진다. 055-382-7182

동화사

개산 1510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제 및 전통문화축제를 10월 11일~12일 양일간 봉행한다. 동화사 개산대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역대조사 스님들에 예를 올리는 헌공다례를 시작으로 극락화상 영정이운식, 개산기념 법요식에 이어, 오후 4시 '코리아팝스 오케스트라 초청 산사음악회', 만공불사 점등 및 탑돌이가 진행된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규방다례, 태교다례, 신라차법 등을 재현하고 다양한 행다법을 시연하는 '팔공산 차문화제전', 시화전 '글과 그림의 만남전', 대형 종이와 붓으로 동화사 개산 축하 글을 쓰는 서예시연 퍼포먼스와 국악한마당이 펼쳐진다. 053-982-0101

은혜사

10월 12일 개산 1194주년 기념 가사불사 및 만공불

분홍빛으로 물든 가을산사를 찾아 사찰을 개칭한 고승대덕의 가르침을 배우고, 불교문화의 향취에 흠뻑 빠져보자.
양산 영축산 통도사, 대구 팔공산 동화사, 영천 은혜사, 김제 모악산 금산사, 서울 수오산 봉은사, 광주 계룡산갑사, 고성 연화산 옥천사 등 전국 사찰에서 개산대제가 잇달아 열린다. 올해 각 사찰의 개산대제는 불교문화에 취할 수 있는 행사가 다채롭게 열려 지역축제로 자리매김될 전망이다.

통도사·동화사 등 개산대제 잇달아 문화행사 다채...지역 축제로 변모

사, 산사음악회를 봉행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법요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법공양 순으로 이어지며, 오후 2시부터는 산사음악회, 6시 만공불사 점안식, 산사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은혜사는 전야제로 11일 오후 3시 역대 조사스님들에 예를 올리는 다례제를 부도전에서 봉행한다. 054-335-3318

금산사

10월 15일 개산 1404주년 개산대제를 연다. 오전 9시 30분 조사전과 부도전을 참배를 시작으로 개산대제 기념법회에 이어 오후에는 보살계 수계식이 진행

된다. 063-548-4441

봉은사

개산 1208주년을 맞아 9월 28일~10월 4일 봉은불교문화축제를 연다. 봉은사는 9월 28일 오전 10시 개산대제 및 다례제, 인경체합전을 시작으로 29일 사명대사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어 1일부터 4일까지 무료차 시음회, 가훈 써주기, 도농불이 직거래 장터,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진다. 02-511-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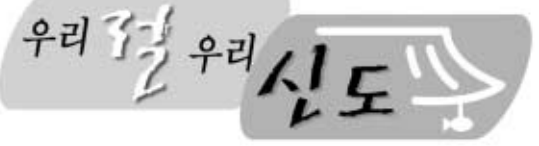
갑사

개산 1583주년을 맞아 계룡산 갑사주지 장곡는 11월 2일 기념법회 및 의승장 영구대사 추모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월 26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계룡산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은 제4회 계룡산 산중음악회'를 개최한다. 041-857-8981

옥천사

11월 23일 개산 364주년 개산대제를 앞두고 제 1회 전국불교문화작품 공모전을 연다. 전국불교문화작품 공모전의 응모내용은 운문부, 산문부 각 2편 이상. 일 반부와 학생부로 나뉘 응모 가능하다. 응모마감은 10월 31일까지이며, 시상식은 11월 23일 고성 옥천사에서 개산대제 행사와 함께 열린다. 055-672-0100.
한편, 합천 해인사는 9월 21일 개산조 스님에게 육법공양을 올리는 다례제 행사를 가졌으며, 경북 봉화 청량사는 개산 1340주년을 기념해 9월 27일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마을사람 합심해 일군 약수암”

파주읍 약수암 지킴이 문수행 보살

“어머니를 따라 약수암에 다닌 게 벌써 40여년이 됐어. 마을사람 모두가 그래. 스님이 거북산 한 귀퉁이에서 조그만 움막을 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른, 어린아이할거 없이 다 돌을 지고 날라 터를 닦고 법당을 지었거든. 그러니까 약수암은 마을사람들 공동의 집인셈이야.”

저분하거나 먼지가 쌓였으면 묵묵히 걸레를 들고 쓸고 닦는다. 그렇게 내 집에서 부처님을 모신다는 기분으로, 마을의 즐거운 일 괴롭고 힘든 일들을 모두 약수암에서 기도하며 풀어왔다.

요 근래 문 보살은 스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스님이 마을 내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해 ‘거북마을’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의 큰 어른으로써 별다른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기 때문이다. 또, 지난 세월 약수암과 함께 한 문 보살의 몸이 슬을 고장이 나 사할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 때문이다.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위치한 약수암에는 대웅전의 서까래와 함께 나이 먹어 가는 지킴이 보살들이 많다. 문수행(본명 류일형, 71· 사진 오른쪽보살)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약수암이 위치한 거북산(본칭 태봉산)은 원래 문 보살의 어머니가 묻힐 묘자리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을에 사람이 생겨 이웃



어머니 묘자리 주저없이 신행공간으로

김치 한통, 쌀 한봉지 정성으로 신심키워

들의 신행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말의 주저 없이 절터로 스님께 내놓았다. 마을사람들 역시 제 집일처럼 돌팔매와 삼과 곡괭이를 들고 나섰다. 그렇게 마을사람들이 직접 일구고 지켜온 도량이 약수암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 같은 체계적인 신도조직이나 법당청소와 공간간 봉사 등의 역할분담이 거의 없다. 그냥 김치를 담그다 스님과 기도 정진하는 보살들이 떠올라 한통 더 담고, 밥을 지으려 쌀을 푸다 부처님 공양 생각에 한 봉지 지고 올라올 뿐이다. 또한 법당이 지

하지만 문 보살은 오늘도 아픈 관절을 지팡이에 의지하고서라도 이웃보살들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약수암에 오른다. 그리고 오를 때마다 생각한다. 초행자가 찾기에 어려운 이 구불구불한 길을 마을 앞 4차선 도로 개통과 함께 일자로 꼭 내주고 싶다고. 그 동안 약수암이 그래왔듯 이웃과 가깝고 편안한 부처님 도량으로 자리잡아, 많은 이들이 찾아 북적거렸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추천의 말
해각스님 약수암 주지
약수암은 순전히 주민들이 손으로 일군 도량입니다. 그 중 문수행보살은 약수암 지킴이라는 표현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초창기부터 절일을 모

불심 깊어 신도들의 귀감
두도말야 해 온 분입니다. 건강상 지금은 못하시지만, 젊었을 때에는 매일 법당을 찾아 나무아미타불 정진을 하는 등 수행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불심 깊은 문수행보살의 모습은 약수암을 찾은 많은 신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품안에서 즐거운 한국생활을”

광주 외국인노동자 쉼터 개소 의료, 종교, 교육등의 기회제공

광주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다. 광주 자비신행회 이사장 현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한빛외국인노동자쉼터를 10월 11일 개소한다. 광주 동구 내남동 옛 지원초등학교에 자리한 한빛외국인노동자쉼터는 하남공단과 광주첨단산업단지, 정읍농공단지 등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한글교육, 의료지원, 문화체험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한다. 한빛외국인노동자쉼터는 국가와 종교,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섭 사무국장은 “지난 8월 광주 하남공단에 설립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쉼터를 제공할겠다는 홍보를 시작한 이후 4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자비신행회 사무실을 내방했다”며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 생활상담, 종교,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할

는 등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영기자

고 정몽헌 회장 49재 도선사서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49재가 미망인 현정은 씨 등 유가족과 현대그룹 관계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21일 서울 우이동 도선사 호국암회원에서 열렸다.(사진)
천도재는 도선사 주지 해자스님의 집전으로 도우스님 관음, 현량및 현화 영가시식,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몽헌거사가 사바세계를 온것도 떠난것도 없다”며 “영가의 진실은 보이지 않으니 대체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했다.
한편 고 정 회장의 49재를 맞아 인터넷 다음카페 모임인 정몽헌을추모하는 카페는 이날 오후 6시30분 현대 계동사옥에서 촛불 추모제를 개최했다. 김원우기자

홍성군 23일 제9회 만해제

만해 환웅은 스님의 유업을 재조명하는 만해제가 열린다.
충남 홍성군은 10월 23일 만해 생가지(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일대와 군청강당에서 제 9회 만해제를 개최한다.
만해제는 만해 시인학교(23-25, 홍성군청), 추모다례(23일 10시30분, 만해 생가지), 문학의 밤(23일 18시, 홍성군청) 제8회 만해 백일장(23일 11시, 홍성군청) 한우리 축제,만해의 밤(24일 13시~20시, 홍주성 푸른쉼터), 한마음 걷기대회 및 기념식(24일 15시, 홍주의사총동)의 행사로 진행된다. 김원우기자

포대화상 석상 제막식

서울 도선사주지 해자는 9월 26일 경내에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높이 2m 가량의 포대화상 석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제막식에서 해자 스님은 “웃음을 잃고 사는 시대에 모든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고 늘 웃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포대화상을 모셨다”며 조성 취지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성불 천수화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님의 현신을 믿습니다



최저의 단가로, 최고의 품질을 개선했어, 전국의 비구니스님과 보살수행신도님의 응맹청진을 위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불 천수화입니다.

* 최초의 모델이므로 사이즈가 230 ~ 250까지(10mm단위)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 가격 : 30,000원
온라인 계좌번호 : 우리은행 211-284306-13-101 예금주 : SW 상사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성불 천수화

관세음보살본품을 보면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음성을 듣고, 찾아와 즉시 괴로움을 없애 주고 모두를 해탈케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고 했습니다. 또한 관음경에 이르길, 중생이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외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들을시고 모두 해탈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SW상사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작되었기에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성불 천수화입니다. 천수화는 신는 순간부터 소원을 성취하고 우주만물의 복을 부르는 울자를 앞축에, 깨우침을 상징하는 끈자를 자크에, 신발 안쪽 뒷면에 "성불합시다"의 문구를 넣어 만행 하기전에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신화화입니다. 천수화는 만행하실때에 신는 순간부터 자신감과 영험을 느끼게 하는 케주얼 풍 최고급 신발입니다. 특히 타사 제품과는 달리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세련되게 디자인된 불자님의 필수 만행화입니다.

총판 및 불교용품 딜러 모집

[주]SW상사 080-331-1818, 051-334-2494, 314-5618